생명나눔회 회원 만남행사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1일 서울 뉴월드호텔 14층에서 이사장 법장(수덕사 주지), 심업 대구·경북지부장과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회 임원 선임 및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후원회 회장에 김성호 불교미술전시관 관장을 선임한 이날 법회는 장기기증자가 두배 이상인 130%(1일 현재 1천3백명)가 증가하고 재정 적립금이 확보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부산 · 경남지역 법사 단합법회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총재 법흥)는 11월 28일 부산 국제신문사에서 부산·경남지역 법사 단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단합법회는 법사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고 법사의 사명과 위상정립으로 불교적 삶을 재현한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초부장으로 취임한 박춘재법사는 "한국교법사대학의 발전을 위해 부산 경남에서 부터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여자교도소 불자회 창립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충청지부는 11월 21일 청주 용화사에서 청주여자교도소 불심회를 창립했다. 박희영 회장은 "유일의 여자재소자 교정기관이란 이름에 걸맞는 불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각안(충북불교대학 부학장) 도안(무심정사 주지) 혜명(한국불교 선농회장) 경원(대전불교회관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불교대 합창단 첫 발표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합창단(단장 우학스님)은 2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불기 2542년 합창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찬불가와 민요 가곡 등 20여곡을 선보여 참석한 2천여 사부대중들의 갈채를 받았다. 남성 25명, 여성 70명으로 구성된 영남불교대학 합창단을 지난 93년 창단후 대구 경북불교합창제에 참가한 것을 비롯 각종 불교행사에 찬조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보여왔다.

선방은 살아있다

'선방은 살아있다.'

천길 벼랑끝에서 발을 내딛는 구도심으로 수행납자들이 3일 전국선원에서 무인년 동안거에 들었다. 극도로 혼란한 조계종 사태의 아픔도 '번쩍' 진리를 깨치는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인가, 5대 총림의 방장스님들이 내린 결제법어는 어느 때보다 청량한 발심의 묘약이다.

3일 입제한 영축, 해인, 조계, 덕숭, 고불총림등 조계종 5대 총림을 비롯한 70여 제방선원에는 방부인원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안거에는 지난해보다 15명의 수행납자가 늘어나 1백8명이 방부한 봉암사 태고선원을 비롯하여 평창 상원사 선방 24명등 총 2천명의 수좌스님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대 총림의 방부인원은 영축총림 통도사 1백50여명, 해인총림 해인사 40여명, 조계총림 송광사 60여명, 덕숭총림 수덕사 40여명, 고불총림 백양사 40여명등 이다.

70여 선원 2천여명 용맹정진
외국인스님 · 재가불자도 입방

백양사 운문선원장 일수스님은 "예년보다 선방의 방부인원이 늘어났다"며 "참선수행으로 정진하는 수좌가 많을수록 한국불교의 전통인 선풍을 드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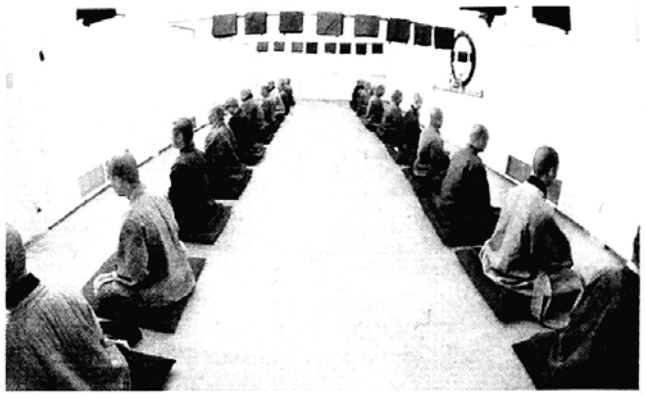
외국인스님도 화계사, 신원사, 송광사, 연등국제회관등에 50여명이 입제했다.

특히 해외에 나가있는 하와이 대원사(주지 도현)도 올해 태평선원을 개원하고 6명의 수행납자가 동안거에 들어갔다. 〈차주상보〉

또 태고종도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과 전남 보성 칠전선원 21명을 비롯하여 담양 용화사 용화선원 6명등 각 말사 선방에서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재가불자들도 용화사 보살선원, 해인사 원당암, 선학원 시민선방, 갑사 대자암 선방 등에 입방하여 한국불교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5대 총림을 비롯한 70여 제방선원에서는 3일 일제히 동안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선방스님들의 용맹정진하는 모습.

무인년 동안거 방장 결제법어

마음경계에 아무것도 없음이 법

영축총림 방장 월하스님

至理無言 絶尋穿
(지리무언 절심천)
塵塵刹刹 不相侵
(진진찰찰 불상침)
如云敎外 傳眞的
(여운교외 전진적)
却是瞿曇 有兩心
(각시구담 유양심)
雖非春雨 紅花爛漫
(수비춘우 홍화난만)

이것이 오늘 동안거의 결제 법문이라. 이 뜻을 제대로 안다면 금년 동안거는 하지 않아도 충분하지만 사족(蛇足)이라면 만년수도(萬年修道)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무성천제(無性闡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약득시의(若得是意)하면 금야삼경(今夜三更)에 비신현공(飛身現空)하고 후후전성(吼吼電聲)이 변시방(編十方)일 것이로다. 마음이 경계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법(法)이라 이름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유에서 무를 찾으려 하니 무가 옳은지 유가 옳은지 갈피를 잡을 수 없으나 유·무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자증력(自證力)이 생기면 공부하는 보람도 있고 또 그것을 위해 모두 모여서 결제를 한다고 봅니다.

자신속 보배로부터 우러나와야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

남전스님이 다시 화두를 들고 조주에게 물었다. 조주스님은 문득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남전스님은 말하였다. "네가 그때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모름지기 자기자신 속에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보배로부터 우러나와야 조주스님의 전기대용(全機大用)을 알 수 있습니다.

결제대중이여!
남전스님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그 죽은 고양이니라.

조주의 살림살이를 알고자 하는가? 떨어진 짚신이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 여러분들의 손을 더럽히리라.

공안을 분명하게 하여 조주스님에게 물으니
장안성 안에서 마음껏 한가로이 노니네.
짚신을 머리에 이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고향산천에만 갔다하면 모두가 쉬게된다.

전야의 밝은달 이같이 밝구나

덕숭총림 방장 원담스님

日拳打破天地前
(일권타파천지전)
日月明暗最初前
(일월명암최초전)
月明前夜如是明
(월명전야여시명)
我今之次一念珠
(아금지차일념주)

한 주먹으로 천지(天地)의 소식을 타파하니
일월(日月)의 명(明)과 암(暗)이 최초의 이전이더라.
전야(前夜)의 밝은 달이 이와 같이 밝으니
내가 지금 그 한 생각을 굴리노라.

아침마다 둥근해는 붉도다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

編壁曾埃老古錐 七斤衫
(편벽증애로고추 칠근삼)
重幾人知 如今
(중기인지 여금)
抱欄西湖裏 下載淸風付與誰
(타정서호리 하재청풍부여수)

끝까지 조주스님을 몰아 부쳤다만 일곱근 장삼 무게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이제는 무거운 짐을 서호에 내던져 버렸으니 맑고 시원한 바람 누구에게 부촉할까?

半夜明月擲乾坤(반야명월휘건곤)
石火光中辨邪正(석화광중변사정)
淸風凜凜 拂天地(청풍늠늠 불천지)
朝朝滄海 一輪紅(조조창해 일륜홍)
喝(할)

한밤중에 밝은 달은
건곤에 빛남이라
돌 부딪쳐서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바르고 삿된 것을 밝히도다.
청풍은 늠름하여
천지를 떨침이라
아침마다 아침마다
창해에 둥근 해는 붉도다.
喝 아-악

연못 비친 달 건져봐야 알수 있어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정전백수자(庭前栢樹子)나 마삼근(麻三斤)이나 천칠백공안(千七白公案)이 불초유념무념(不超有念無念)하면 미륵불열반후(彌勒佛涅槃後)에 이르더라도 역부여시(亦復如是)하야 출두무기(出頭無期)하리라.

대중(大衆)은 주공부(做工夫)하되 여묘포서(如猫捕鼠)하고 여구두연(如救頭燃)하야 여림백척간두(如臨百尺竿頭)하라.

여시용공(如是用功)하면 불일성지(不日成之)하리라.

차처비시(此處非時)에 경론하불하중생(更論何佛何衆生)이리요.

문전적광토(門前寂光土)에 춘래초자청(春來草自靑)하리라.

금일(今日) 이 동안거결제(冬安居結制)라 하니 대중(大衆)은 부작결제심 역부작해제심(不作結制心 亦不作解制心)하라.

일예재안공화난타(一翳在眼에 空花亂墮)니라.

회마(會麼)아
만고벽담공계월(萬古碧潭空界月)이여 재삼로(再三撈)이라사 시응지(始應知)니라.

만고 푸른 못에 비친 허공에 달은 수없이 건져 보고 걸러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도다.

우리 시대의 원효
이기영교수의
불교개론강의
불연이기영전집 제24권, 상권 293면, 8,500원 / 하권 363면, 9,500원

한국현대 불교학계의 거목이었던
불연 이기영교수의 불교관을 집약한 이 책은
불교가 어떤 점에서 진리인가 하는 그 요체를
알기 쉽고 명쾌하게,
그리고 신념에 가득찬 목소리로 설하고 있다.

불교는 새로워져야 한다!
어지러운 한국 현대불교계에 고하는 제언
다시 쓰는 한국불교유신론
불연이기영전집 제18권, 333면, 9,000원

이기영교수의 삶과 사색
내 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나니
불연이기영전집 제17권, 329면, 8,000원

한국불교연구원
TEL : 3411-6167,6168
FAX : 3411-6164

1999학년도 동학사 승가대학 신입생모집

동학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사미니과 00명
2. 시험과목 면접, 염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3. 입학자격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생인 경우 2년 이상 휴학한 스님
4.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은사스님 추천서 1통
(4)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사진(반명함판 3×4) 3매
5. 준 비 물 오조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6. 시험일시 1999년 1월 27일(음 12월 10일)
7. 도착일시 1999년 1월 26일(음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8. 문 의 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종무소 전화 : (042)825-2570

■ 교통편
· 대전본역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대전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좌석버스 1번, 102번 · 동학사 주차장에서 오후 2시부터 봉고운행 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일연